

교보 애.세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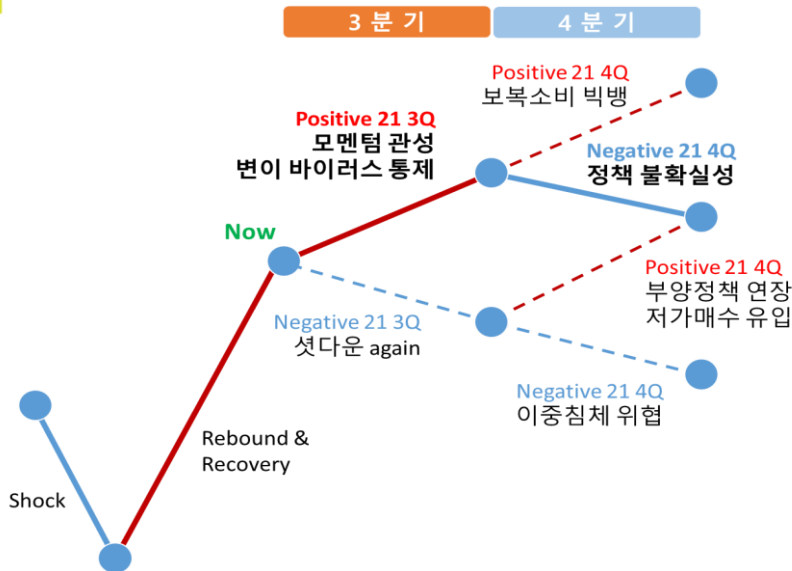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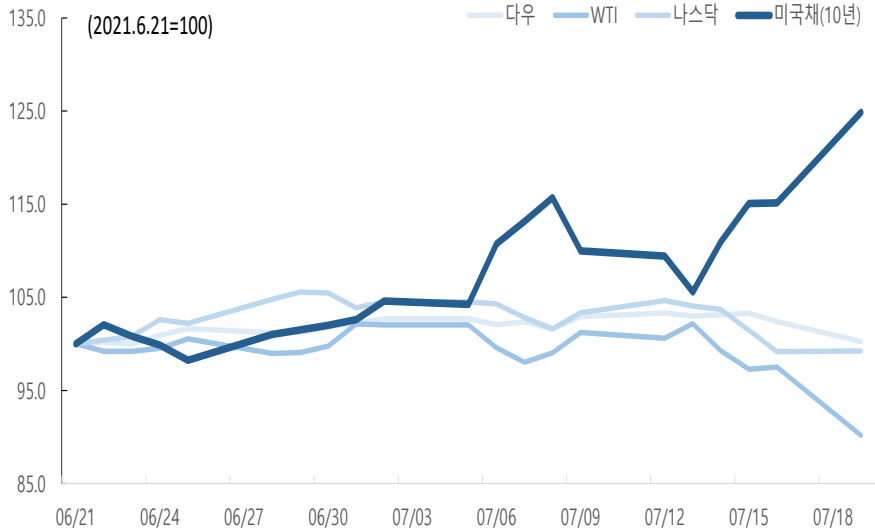
애널리스트가 말한다

N차 투자기회

9개월 연속 랠리를 이어가던 국내증시는 첫 저항을 받고 있다. 호전된 거시지표 및 기업실적에도 불구하고, 추가 상승의 동력을 얻는데 실패하며 투자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.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소식도 경기민감 산업의 기대를 꺾고 있는 상황이다. 탄생(Birth)과 죽음(Death) 사이에는 기회(Chance)가 있다고 했는데, 지금은 코로나(COVID-19)만 보인다.

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

- 지난 한달 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, 에너지, 상품의 가격 동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. 한편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은 빠르게 하락(채권가격 상승)해 자본시장의 밸런스가 안전자산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- 전일 위험자산 가격 충격이 저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채 수익률 하락이 진정되어야 힌트를 얻을 수 있다.



- 필자는 남은 하반기 주식시장 트렌드를 3분기 강세, 4분기 둔화를 유지한다. 여전히 펀더멘탈 모멘텀 관성이 강하고, 가격변동에 대해 시장플레이어 투자판단이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.
-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섯다운 섯택은 쉽지 않다. N차 대유행의 불확실성은 투자기회였음을 기억하고 순환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.